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지겨 쿼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유화

헛간처럼 보이는 이 장소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벽이 있지만 낮은 벽이어서 서로 넘나들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은 시대의 벽을 넘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벽 앞쪽에는 구유가 놓여 있고, 구유 아래에는 예언서들이 놓여 있는데, 그중 한 권의 예언서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펼쳐진 예언서는 이사야서(11, 1)로 햇순이 돌아오는 이사야의 그루터기에 대한 모습을 보여 줍니다. 이 장소의 유일한 빛은 구유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있으며, 황금빛 밀짚이 빛의 발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볼 수 있는 인물은 구유에 모여 있는 평범한 한 가족입니다. 아이 둘이 밝은 표정으로 구유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뒤쪽에 아이들의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왼쪽의 어머니는 아들의 어깨에 오른손을 얹고 있고, 아버지는 두 손을 모은 채 경배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아이는 키가 작아 간신히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며 마치 벗짚을 덮고 누워 있는 아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작가는 이렇게 두 가지의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그리고 구유 곁에는 마리아가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미소를 머금고 구유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작품의 특징은 구유에 아기가 없다는 것인데, 대신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 14)는 성경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진 성경에는 마지막 구절로 '그리고 우리들은'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별들이 반짝이는 베들레헴의 마구간을 아주 친숙하게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림 중앙에 있는 말씀은 하느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표현해 줍니다. 우리들은 하느님의 아드님을 예수님의 동시대인들처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구유에 있는 아기를 실제로 보지는 못하지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진 그분의 말씀을 통해 봅니다. 그 말씀은 한처음부터 하느님 곁에 있었고, 하느님 자체였으며, 모든 것이 이 말씀을 통해 이루어졌고,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요한 1, 1-4 참조).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일종의 '사랑 선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 (1요한 4, 8)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신 가장 큰 이유를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와 닮고 같아지려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것처럼 하느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 2000년 12월호 『가톨릭 디다케』, 『시정각 교리교육』 (글·김남철 바르톨로메오 신부) 참조
 ※ 퍼즐 그림은 『가톨릭 디다케』 홈페이지(<http://didache.eduseoul.or.kr> -자료방-디다케 자료방)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